

동무년표제작을 위한 동무유고의 고찰

홍 석철 · 고 병희 · 송 일병*

A study on 'The manuscripts left by Dong-Mu' for the chronological table of Lee Jae-Ma

Suck-Chull Hong, Byung-Hee Ko, Il-Byung So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In order to improve comprehension of Dong-Mu's thought, the 'The manuscripts left by Dong-Mu' was studied.

The contents of 'The manuscripts left by Dong-Mu' and the writing date of 31 articles were presumed. The chronological table of Lee Jae-Ma was made out with the affairs of everyday experience.

The writing date of Lee Jae-Ma's articles and 4 articles which were written by others were presumed and the everyday experiences were excavated.

The chronological table of Lee Jae-Ma was made out with upper results.

[Key words] The manuscripts left by Dong-Mu, Transcription, Chronological table, Biography

I. 序 論

동무 이제마는 1837年(丁酉) 태어나서 1894년(庚子)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독창적인 哲學과 醫學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세계관은 철학서인 格致藥과 의학서인 東醫壽世保元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體質의 醫學觀은 獨創性이나 實用性에 있어서 특별하다 할 수 있어 後世 醫家들에게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學問的 世界가 독창적이면서도 그의 史料가 충분치 않아 學問的 研究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995년 발굴되어 빛을 보게된 東武遺稿 筆寫本¹⁾은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본다. 著者는 東武의 哲學과 醫學을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東武遺稿 筆寫本의 構成과 쓰여진 年代를 고찰하여 보고, 또한 글속에 나타나는 사건과 내용을 근거로 東武 一代記를 年表로 만들었다.

II. 文獻資料

1) 昔在楚漢之時，劉項以烏合之衆，戰鬪千里，經吞百二之關者，何也。六國之餘，將士習戰，人民智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1) 푸른한의원 박윤희 원장에 의하여 발굴되어짐.

勇故也。今此我國，都市閭巷，清談閒話，嗜酒慢食，… 所謂崔參奉者 出自江原道而，騷動北道，作弊多端故，七八日前已捉囚本邑捕廳耳。僕於本月初四日上疏于我大君主陛下，論崔之罪狀而回題未到。 (答中川祐順書)

2) 清韓則不然。其在東洋也，猶同舟之人，利害休戚，共同受之，痛苦相恤，患難相救，同舟之誼也。抑我客年出師者何也？欲扶韓而持其獨立也。乃所以保東洋之平和也。當時清亦與我同志，以從其事，則何至交爭相戰？清不從吾議，終至宣戰，豈吾本志哉？今清憤過以與我和，吾當復行其本志也。 (外交論)

3) “孟子之時，戰國之世兮，釋鎗劔坐作進退之法，家家皆講，人人皆習，慣於手足，明於心目，雖不加習，必無可疑，故孟子以孝悌之教習之而必勝也。孟子以來二千年後，我國孝悌之行，家講戶誦，入於骨髓，浸漬已久，自在豐足，若及以後陸統坐作進退之法，家家講之，人人習之，使其濃熟無疑，然後，行之則必勝矣。若我國但修孝悌，而不修後陸統，則與戰國之但修劔，而不修孝悌者，無異也。若使孟子，復起於我國，不易吾言矣。” (孝悌論)

4) 時俗之論言，必稱富國強兵云，富國強兵之實，時俗知其意味乎？小人請論富國強兵之術，國有賢相，然後，可以富國，兵有良將，然後，可以強兵，若無賢相良將，則雖欲富國強兵，必不可得，… 國有良將，則厚德深恩，撫循人民，英風豪魄，磨勵兵士，出言有章，行己有恥，發號出令，而人樂聞，與師動衆，而人樂從，家家齋糧，人人習兵，手法足法後陸統十萬之師，可以備具於三四年間矣。此非強兵乎？ (上大臣書)

5) 蘇生生長擢年少學 終未免猥冒之責虛偽無伏 … (陳情)

6) 先生自幼聰明絕倫，聲聞夙著，高宗乙亥武科，丙子以武衛別選軍官入衛，丙戌除鎮海縣監，庚寅遞歸，乙未之變，各道起兵，衆心喧騰，丙申以鎮撫有功，除本道宣諭委員，丁酉拜高原郡守，戊戌遞歸，庚子卒，壽六十四。嗚呼！先生以天縱之質繼開之學，值氣數艱險，既不得用，退而著書，惟『東醫壽世保元』『格致藁』，行于世云。

祖諱忠源 字季信 穆祖二男，安原大君諱珍十七代孫也，諱益濟系子也。正祖丁酉生，己酉終，以孝贈教官旌門，墓東川面舊洞丁原。配利川徐氏命迪女，附右，無育，繼配宜寧南氏光協女，附左，男攀麟直長，攀九縣監，一攀五，女金廷寶金錫武 考諱攀五 字 純祖壬申生，辛卯司馬兩試，己酉四月廿七日終，墓新興郡下元川面祖上里炭釜洞巽原。配全州金氏基勉女，附右，無育，繼配全州金氏致弼女，附左，有二男，繼配旌善金氏用贊女，墓雲南面咸春洞先山卯原，有二女，後室慶州金氏宗麒女元江孫女，六月廿五日終，墓州北面與祥里艮原，有一男，男燮曾燮魯濟馬，女韓象鉉韓駟。

先生諱濟馬 字懋平，初諱燮雲，字子明，號東武，憲宗丁酉三月十九日甲申午時，生于咸興屯地。光武庚子九月廿一日午時，卒于門人金永寬家，葬于川西面雲洞栗木時壬原。配慶州金氏掌令奎衡女，戊戌十二月四日生，己未十一月廿一日終，墓定平郡朱伊面芦洞里朴長洞 原。有一男。後室金氏正月五日終，墓上元川面豐上里艮原，有一男。後室 氏，有一女，男龍海龍水，女高衡天。 (追錄)

7) 奧在丙申春,有從東道來者,曰崔文煥,假稱奉勅,虛張舉義,奔入府中,戕害命官,結黨募軍,煽動衆心.此說聞流于京師及元港,方欲派兵,禍將不測,實有俱焚之慮耳.郡人大驚往迎公.公曰,桑梓之鄉,有此大難,不可以衰經辭也.慨然下山,拿其從者,以取輸情,俾釋群疑,斯得罪人,付犴待裁,報京照港,止其外兵,遂以無事.郡人相慶曰,公今活我,維我父母,至壬寅琢珉于西堤,記其事.噫!民之思公不以其沒而少弛,可見公德之懿而民性之彝也.公咸與人,有經濟之略,民售大用,發以爲書,有格致藥·東醫壽世保元等篇,行于世.光武六年壬寅 肇夏上辭 前主事 金勉弼謹記 清州 楊 普淵謹書
(前高原郡守李公濟馬追慕臺)

8) (丙申年二月初四日,使咸興士人韓鎮衡管奴李國翰持疏上京,而路過平泉,遇賊黨奪疏乾沒,幸得逃生,而二十日還到咸興)咸興草莽,臣前鎮海縣監李濟馬,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通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徵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大君主陛下,伏以臣北方孤蹤,猥蒙陛下日月河海之澤,丙子年以武衛別選軍官入衛,丙戌年除授鎮海縣監,每爲前武衛都統使金箕錫所知遇,屢屢上達矣.庚寅年臣遞任上京,則金箕錫已卒,逗留都下五年,而下情無由上達.至于甲午六月,國勢大變,姦臣亂政.伊時臣出入漢南漢北等地,往來觀變,清日交戰,局勢甚危,一國奔波,莫可奈何.臣家有嫡母,年滿七十,日薄西山,私情憫迫.至于乙未二月,決意下鄉,則其年七月老母卒世,遂爲居喪.至于八月,國母遭變,姦臣脅權,遂有剃髮之論.嗚呼!事已至此,何可忍言?咸興本郡,則參書官陸裕信兼署理觀察使,締結元山港警務官及巡檢背,銑欲剃髮,屢屢發令於本邑,威勢甚毒,衆心共憤,積怒漲天之餘,平康陣召募軍官崔文煥謂有春川勇義大將指揮,而以今年正月二十日,持三防營檄文來到本邑,張掛四門,衆憤積怒,一時共奮,其翌日即殺參書官,而崔文煥舉措煩擾,締結雜流,多造木印,廣置召募官,分遣各邑,外資發兵,內索錢糧,實爲乘亂生事之端.蒼卒邑中無主,而人民渙散,衆心喧騰.一邑衆民,一時聚會,逼臣於衰麻中,起復從事,爲一邑主管,以定變難.臣竊伏念,本邑南接元山港二百餘里,西距清境六百餘里,北與俄國境千餘里,交隣其勢甚孤,自非忠義英才數十郡管轄,莫可防禦.伏願陛下亟擇良將以鎮撫北方,安民節用,修治器械,數年觀成則庶有興復之望.臣無任激切屏,營之地 謹昧死以聞.
(鎮撫時上疏)

9) ① 己未三月念後 元谷柯峙會吟

山含春暖杏亭亭,花落千峰草又青,悠然乘興悠然去,一任斜陽醉復醒.

② 六月既望 連日陰雨 以詩相和

烟雨霏霏洞裡天,禾麻菽麥滿前前,國泰時豐衣食足,生長聖代老年年.

③ 自警 四首

丈夫貴靜定,身立方知物,常聞諸格語,來事須來日.
詳看來到事,不可則便休,無更再三復,翻成千百憂.
遊神雲漢上,習步月灘中,若從埋沒去,徒勞亦無功.
浮海便浮海,上山便上山,必欲有心處,其人不暫閑.

④ 癸亥夏 南遊鷄龍 與居昌金生同乞 題兩乞

乞法好宜作兩人,逢場莫道面情新,若富復憐他乞者,不妨吾乞慰諸貧.

⑤ 己巳春 寓居屯地 自警東壁 四首

一物自有一物用，終看別物又別般，屯地主人昧端緒，與物不平益怨物。
彼物自是這邊物，君心胡爲那邊措，以那這措是差處，願將君心莫怨物。
彼物相群天地間，與君同流君莫怨，彼物將欲惱擾君，願君先盡倚角計。
安平泰樂固其時，困窮否難亦其時，我身忽生萬物中，與物得平是得春。

⑥ 自警西壁 四首

欲學度量學機深，機深合天能無妄，今君機淺口舌忙，妻子輕君不肯服。
欲學技藝學膽定，膽定心手方作用，今君膽弱心手劫，細者不辨況大者。
外擺忠信人亦擺，望之不似最可羞，願君心如金石堅，一片牢固人莫動。
內飭權詐人亦飭，狂妄顛錯更可憂，願君心如滄浪靜，兩涯汪洋人莫測。

⑦ 又自警二首 兼呈栗洞

丈夫患用謀財利，念念轉到誘人地，若能通工皆美食，鄙淺事役猶可爲。
丈夫貴驕耶鄙淺，丈夫怠惰不通工，廚下無糧妻子餓，自然心頭利人財。

⑧ 又自警

弟兄妻孥自各物，智愚賢拙亦各才，友悌和慈自各道，曲盡之妙亦各方，
眞辨任物眞知行，妄辨任物妄知行，眞辨天下任天下，妄辨室中誤室中。

⑨ 辛未季夏 會于沙村 以生長老人世間爲題 相和

好行其樂惡行憂，憂樂中間眞的遊，樂以逐溪臨澗石，憂如登海棹孤舟，
諸君能力當同涉，鄉黨回天亦或流，最喜恭勤携餘酒，多怕放浪日登樓。

⑩ 壬申六月 過羅村 修正賦

雖見善如不及，行以忙則有殃，雖見惡如探湯，行以忙則有亂，
見親比之向正，忙提之而壞守，即其向而察焉，徐提之而益助。
見遠疏之有正，忙進之而失守，即其有而察焉，徐進之而得助。
見親比之向邪，忙退之而壞馭，即其向而察焉，徐退之而得閑。
見遠疏之有邪，忙卻之而失馭，即其有而察焉，徐卻之而益閑。
見善惡而徒忙，辨邪正則自徐，公於人而爲正，專於己而爲邪，
樂公利而是善，貪專利而是惡，聽其言而辨眸，察其安而觀由，
臨之莊則敬立，資之深則居安，欲正之則歸正，莫不芸而芸人

III. 本 論

東武遺稿는 본래 精神文化院에 보관중인 장서로서 저자가 받은 것은 複寫本이다. 상소문, 기행문, 시, 비문, 철학서, 의학서 등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31종이나 실려 있으며, 개중에는 동무의 글이 아닌것도 있다. 여러쪽의 첫머리 혹은 끝머리에 明善錄이라는 題目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를 筆書한 종이가 明善錄을 기록한 종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 東武遺稿 筆書本の 目次 構成

東武遺稿의 筆書本은 16절지 2장이 한쪽(page)으로 기록되어 첫 page를 1쪽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이 29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1쪽부터 한쪽씩 건너뛰며 14쪽의 또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총 43쪽의 분량으로 되어 있다. 첫페이지는 濟衆新編이 기록되어 있고 4페이지부터 東武遺稿라는 小題目으로 시작하여 金勉弼의 前高原郡守李公濟馬追慕臺를 끝으로 총 31편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目次構成은 다음과 같다.

1. 濟衆新編 (五福論, 勸壽論, 知行論)	-----1
2. 東武遺藁	
時色耳目, 賓朋交遇, 儕輩黨與, 曹屬服役	-----4
孝悌論	-----6
上大臣書	-----7
辛巳五月元山港問答	-----9
丁酉元山港問答	-----11쪽과 18쪽 사이사이에 삽입(총 7쪽)
銀蕪時上疎	-----16
答中川祐順書	-----16
傳令本邑捕執綱	-----17
各道風俗	-----18
性命論	-----18쪽과 21쪽 사이사이에 삽입(총3쪽)
遊蹟	-----19
四端論	-----20쪽과 21쪽 사이에 삽입 (총1쪽)
知風兆	-----20쪽과 22쪽 사이사이에 삽입 (총2쪽)
闡幽草	-----21
外交論	-----21
陳情	-----22쪽과 25쪽 사이에 삽입(총3쪽)
詩賦	-----25
① 己未三月念後元谷柯峙舍吟	
② 六月既望連日陰雨以詩相和	
③ 自警四首	
④ 癸亥夏南遊溪龍與居昌金生同乞題兩乞	
⑤ 己巳春寓居屯地自警東壁四首	
⑥ 自警西壁四首	
⑦ 又自警二首兼呈栗洞	
⑧ 又自警	
⑨ 辛未季夏舍于沙村以生長老人世間爲題相和	

⑩ 壬申六月過沙村修正賦

教子平生箴-----27
 八卦箴總論-----28
 追錄-----28
 前高原郡守李公濟馬追思臺-----29

2. 東武遺稿 筆書本の 筆書年代

東武遺稿에는 글쓴 年代나 編輯한 年代가 나타나 있지 않다. 글씨체는 始終 同一하여 一人에 의하여 筆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중 前高原郡守李公濟馬追思臺의 글 속에 追慕臺가 쓰여진 시기가 壬寅年(1902年)으로 나와 있고, 필서된 종이 중간중간에 들어간 明善錄 印刷本²⁾의 題目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1940年 以後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東武公이 직접 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資料7. 참조)

3. 東武 著作이 아닌 글

31편의 글중 傳令本邑捕執網, 外交論, 追錄, 前高原郡守李公濟馬追思臺 등 4編은 東武의 글이 아니다. 즉 傳令本邑捕執網은 국가에서 崔文煥을 체포하라는 문서로 보이며, 外交論은 淸日戰爭 후 東洋의 平和論에 관하여 日本人이 쓴 내용으로 보인다. 追錄과 前高原郡守李公濟馬追思臺는 東武의 死後에 쓰여진 글이므로 동무의 글이 아니고 타인의 글이다.

4. 東武遺稿 筆書本の 年代順에 따른 構成

東武遺稿를 글이 쓰여진 연대순으로 나열하여 보는 것은 그의 학문의 흐름과 시대적 관심을 추론할 수 있다. 31편의 글속에 15편은 글이 쓰여진 연대가 기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16편은 연대를 직접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글속에 나타나는 상황적 근거를 단서로 가능한 그 연대를 추정하여 보았다.

4-1. 연대를 표기한 글

글의 제목이나 글의 처음 혹은 마지막에 글을 쓴 시기를 표시한 글은 총 15편에 해당된다. 그 글의 제목은 [표1]과 같다.

4-2. 年代表記가 없는 글

글쓴 시기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글은 총 16편으로서 다음과 같다.

各道風俗, 閩幽草, 八卦箴總論, 答中川祐順書, 平和策, 孝悌論, 追錄, 性命論, 四端論, 知風兆, 陳情, 詩賦(六月既望 連日陰雨 以詩相和, 自警 四首, 自警西壁 四首, 又自警二首 兼呈栗洞, 又自警)

2)한석지(1709-1790?)의 가전본으로 1940년 함흥에서 간행된 책.

4-3. 글속에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글속에 연대를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글 속에 나타난 사건이나 내용으로 보아 그 글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4-3-1. 答中川祐順書

答中川祐順書는 2월15일이라는 일자만 나타나고 연대의 기록이 없다. 내용으로 보아 東武가 崔文煥을 체포한후 7-8日後 中川祐順에게 보낸 편지이다. 따라서 이글은 丙申年(1896년 당60세) 2월 15일로 추정된다.(資料1. 참조)

[표1] 글쓴 시기를 표기한 글 제목

나이	년도	글 제목
23	1859(己未)	己未三月念後元谷柯峙舍吟
27	1863(癸亥)	癸亥夏南遊鷄龍與居昌金生同乞題兩乞
33	1869(己巳)	己巳春寓居屯地自警東壁四首
35	1871(辛未)	遊蹟
		未季夏舍于沙村以生長老人世間爲題相和
36	1872(壬申)	壬申六月過沙村修正賦
45	1881(辛巳)	辛巳五月元山港問答
46	1882(壬午)	教子平生箴
59	1895(을미)	時色耳目, 賓朋交遇, 儕輩黨與, 曹屬服役
		鎖撫時上疏
60	1896(丙申)	傳令本邑捕執網
		濟衆新編(五福論, 勸壽論, 知行論)
61	1897(丁酉)	上大臣書(2\16)
		丁酉元山港問答
死後	1902(壬寅)	前高原郡守李公濟馬追思臺

4-3-2. 外交論

一名平和策이라고命名되어진 外交論은 年代와 날짜의 기록이 全無한데 內容으로 보아 이는 淸日戰爭후 淸國에 승리한후 구미열강의 간섭과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경계하며 淸日韓이 단결하여 兄弟의 義를 맺고 협력하여야 東洋의 平和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글 중 “일본이 지난해에 朝鮮의 平和를 위하여 出師(전쟁을 위해 군대를 보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는 淸日戰爭(1894년) 다음해인 1895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東武公이 쓴 것이 아니고 日本人에 의하여 쓰여진 글임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다.(資料2. 참조)

4-3-3. 孝悌論

孝悌論은 薪山社鄉約契跋文으로서 鄉人들의 契인 鄉約契의 跋文이다. 이 글에서 “孟子가 孝悌만을 강조한 이유는 그 시대가 戰國時代인지라 활쏘기, 창, 칼쓰기, 전투법 등을 사람마다 스스로 익혀 손발에 익어 더 이상 強調하지 않아도 되었던 까닭에 孟子가 孝悌의 가르침만 익숙하게 가르쳐도 必勝을 기약할 수 있었으나 현 우리 朝鮮은 효제의 행실은 骨髓에 배어 있으니, 後驪統을 쓰는법과 전법을 모두 익히면 필승을 기약할 수 있을것다”라고 하였다. 또한 孟子는 “孝悌의 鄉約을 한나라에 가르치려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後驪統의 鄉約을 한나라에 시행하고자 하면서 孝悌의 근본을 삼으니 孟子의 무리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丙酉年(1897年 당61세) 上大臣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즉 “富國強兵하려면 어진 宰相과 좋은 將帥가 필요하며, 집집마다 軍糧을 비축하고 사람마다 兵法를 익히면 手法과 足法 및 後驪統을 가진 10萬의 군대를 3-4년사이에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強兵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동일성으로 보아 孝悌論의 글쓴 시기는 上大臣書를 쓴 시기인 1897年(丁酉 당61세) 前後로 추정된다. (자료3., 자료4. 참조)

4-4-4. 陳情

關北地方의 觀察使에게 올리는 陳情書로서 士農의 弊端을 말하고 그 對策을 말하였다. 옛날의 선비는 글을 보고 백성을 도왔으나, 近者에는 私利를 다투는 弊習이 자행되어 高官大爵에게는 아첨하고 의지할데 없는 백성들은 착취를 하니 그 폐해가 엄청나 이를 시정할 엄단을 내려달라고 하였다. 글중에서 “미친한 소생이 鄉里에서 生長하여 年少할 때에는 학문을 제대로 쌓지 못하였고 마침내 외람된 職責을 맡게 되어서는 허위로 형편없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하여 이때 筆者는 關北에서 어떤 職責을 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李濟馬가 高原郡守로 있던 丁酉年(1897년 당 61세)에 관찰사에게 올린 陳情書라고 생각된다.(資料5 참조)

4-4-5. 詩賦

총 10편의 詩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중 5편은 題目에 年月 혹은 年季節을 기록하고 있으나 나머지 5편은 기록이 없다. 東武遺稿에 기록된 순서에 의하면, 가장 먼저 소개된 ①의 시는 己未年 삼월로 1859년(당23세)에 씌여진 시이며, ④는 癸亥年 夏인 1863년 여름(당27세)에 씌여진 글이며, ⑤는 己巳年 春인(1869年 당33세)이며, ⑨는 辛未年夏(1871년 당35세)에 씌여진 글이며, ⑩은 壬申년6월(1872년 당36세)에 씌여진 글로서 특징은 23세에서 36세 사이에 씌여져 있으며, 필서된 연대순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개되어진 10편 전체가 이러한 연대순일 수 있다는 추정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②번 시는 육월이라는 달만을 지칭하였다. 이들을 내용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표2] 詩賦 年度表

나이	년도	역사	일상사	시제목
23	1859	철종10년	長男 出生 婦人 死(11\21)	① 己未三月念後元谷柯峙舍吟 ② 六月既望連日陰雨以詩相和 (추정) ③ 自警四首 (추정)
27	1863	고종즉위		④ 癸亥夏南遊溪龍與居昌金生同乞 題兩乞
33	1869		屯地寓居	⑤ 己巳春寓居屯地自警東壁四首 ⑥ 自警西壁四首 (추정) ⑦ 又自警二首兼呈栗洞 (추정) ⑧ 又自警 (추정)
35	1871	신미양요	豆滿江地域 紀行	⑨ 辛未季夏舍于沙村以生長老人 世間爲題相和
36	1872		次男 誕生	⑩ 壬申六月過沙村修正賦

①의 내용은 삼월의 자연을 음미하며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흥겨운 심정을 묘사하였으며, ②의 내용은 六月 장마 시기의 풍요함과 태평시절에 살아감을 자족하며 쓴 시로서 두 시 모두 서정적 즐거움이 공통적 정서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②시는 ①시와 동일년도인 己未年 6월에 쓰여진 글인 듯하다. 己未년에 長男이 태어나고 11월 21일 婦人이 死亡하였다³⁾. ③은 세상사에 매몰되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자경시로서 아마도 부인의 사망과 연관된 시가 아닌가 추측이 될 뿐이다.

⑤의 시는 己巳年 봄에 쓴 글로서 東壁에 붙여 놓고 스스로를 경계한 詩이며, ⑥번시는 동일한 형식으로

西壁에 써 붙였다고 쓰여 있으며, ⑦의 시는 역시 自警詩로서 栗洞에게도 주었고 되어 있다. ⑧의 시는 又自警이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다. 이들 시의 특징은 모두 자경시로서 동벽 혹은 서벽에 붙여 놓았다고 되어 있으며, 又自警이란 문자가 들어 간것으로 보아 한 시기에 여러가지의 자경시를 써서 스스로를 경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屯地에 寓居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였던

3. 부인 김씨는 무술년(1838년)에 태어나서 기미년에 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미년의 1859년(당시 김씨가 22세)와 1919년(당시 82세)의 가능성이 있다. 이중 어느 해인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단지 정황적 증거로 보아 22세의 나이로 필자는 보고 있다.

데 辛未年(1871년 당 35세)은 遊穢과 ⑨의 辛未季夏舍于沙村以生長老人世間爲題相和를 지은 것으로 보아 둔지에 우거한 己巳年(1869년 당33세)나 庚午年(1870년 당34세)에 함흥에 머물면서 쓴 글일 것으로 보여진다.

⑤시의 내용은 각 사물에 나타나는 개성을 알고 원망하지 말며, 만일 나를 괴롭히려하면 먼저 제압을하여 사물과 평화를 이루라는 내용이며, ⑥의 시는 깊은 심기를 배워 마음을 금석같이 견고히하여 남들이 흔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으며, ⑦의 시는 장부라하여 산업에 종사함을 수치로 생각하여 처자식을 굶겨 재물을 탐내느니 차라리 산업에 종사하여 재물을 탐내지 않음이 옳다는 내용이며, ⑧의 시는 가족들 역시 물이므로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여 억매이지 말자는 시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속에 흐르는 일관된 뜻은 나와 외부사물 사이의 관계를 옳게 알아 견고한 마음을 항상 하자는 내용이다. (資料.9 참조)

이상에서 고찰 되어진 시부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2.참조)

4-4. 연대추정 불가능한 경우

各道風俗, 關幽草, 八卦箴總論, 性命論, 四端論, 知風兆,

5. 東武遺稿에 나타난 東武의 一代記

동무의 출생은 憲宗 丁酉(1837년) 3월 19일 함흥에서 탄생하였으며, 字는 懋平, 初諱는 燮雲, 字는 子明, 號는 東武라하였다. 할아버지 諱는 忠源 字는 季信으로서 穆祖二男으로 安原大君諱珍十七代孫으로, 諱益濟系子이다. 正祖丁酉에 태어나서, 己酉에 생을 마쳤다. 아버지는 諱는 攀五이며, 純祖壬申生으로 己酉四月廿七일에 卒하였다. 東武의 부인 慶州金氏는 장남인 용해를 낳고 그해 1859년(己未年 동무 23세) 11월21일 22세로 일기를 마쳤다. 後室金氏와의 사이에 둘째아들 용수를 두었고, 또한 세째 後室과의 사이에 딸을 두었으며, 사위는 高衡天이다. 高宗乙亥年(1875년 당39세)에 武科에 응시 丙子年(1876년 당40세)에 武衛別選軍官에 入衛한후, 丙戌年(1886년 당 50세)에 鎭海縣鑑을 제수하였다. 庚寅年(1890년 당54세)에 5년간의 진해현감에서 遯歸後 漢南漢北의 山中에 기거하다 乙未年(1895년 당59세) 歸鄉하여 7월 母親 喪을 당하며 居喪中 丙申年(1896년 당60세)에 최문환의 난이 일어나자 읍의 백성들이 모여 起服從事하여 이를 진정시키도록 하였다. 조종에서는 최문환의 난을 鎭撫한 공을 인정하여 정삼품, 통정대부 선유위원에 제수하였고 丁酉年(1897년 당 61세)에 高原郡守에 제수 되었으나 이듬해인 戊戌年(1898년 당62세)에 遯歸하였다. 庚子(1900년 당64세) 9월21일 金永寬의 집에서 죽었으며, 장지는 西面 雲洞 栗木峙 壬原에 있다. 저서로는 格致藥과 東醫壽世保元이 있다.(資料6. 7. 8. 참조)

6. 東武年表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東武年表⁴⁾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4) 송일병, 제1회 국제사상의학학술대회논문집(1994년), 사상인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과정과 그 추구정신, 이제마의 생애 년표 참조.

동무년표제작을 위한 동무유고의 고찰

나이	년도	역사	일상사	학문	의학
1	1837(丁酉)	헌종3년	탄생(3월19일)		
7	1843(癸卯)			學問始作(伯父)	
13	1849(己酉)	철종즉위	위장장원(항시) 祖父, 父 死		
23	1859(己未)	철종10년	長男出, 婦人死	己未三月念後元谷柯峙會吟	전염병 유행(10월)
27	1863(癸亥)	고종즉위		癸亥夏南遊鷄龍與居昌金生 同乞題兩乞	
30	1866(丙寅)	병인양요		명선록 집축(추정)	
33	1869(己巳)			己巳春寓居屯地自警東壁四首	
35	1871(辛未)	신미양요		辛未季夏會于沙村以生長老人 世間爲題相和, 遊蹟	
36	1872(壬申)		次男 탄생	壬申六月過羅村修正賦	
39	1875(乙亥)	운양호사건	무과 등용		亡陰證에 六味地黃湯 투여
40	1876(丙子)	한일수호조규	무위별선군관입위		
41	1879(丁丑)	중두법실시			전국콜레라만연(일본유입)
44	1880(庚辰)			유락집필시작	
45	1881(辛巳)	신사유람단		元山港問答	
46	1882(壬午)	미통상조약		敎子平生箴	독행편완성
50	1886(丙戌)		진해현감 제수		전국 콜레라 만연
54	1890(庚寅)		진해현감 체직		유락완성
57	1893(癸巳)			반성잠완성	동의수세보원집필(7/13)
58	1894(甲午)	청일전쟁	남한산중기거		동의수세보원완성(4/13)
59	1895(乙未)	을미사변(8) 단발령(11)	고향하향, 모친사	東武遺稿抄 視色耳目編	
60	1896(丙申)	최문환 난 단발령항거 의병봉기	최문환난 평정 정삼품, 통정대부 선유위원	銀撫時上疏 傳令本邑捕執網 答中川祐順書	
61	1897(丁酉)	대한제국 광무연호 독립협회	고원군수 제수	濟衆新編, 上大臣書 日本人 問答書 孝悌論, 陣情	
62	1898(戊戌)	황국협회	고원군수 체직		
63	1899(己亥)	제생의원 (종합병원)			亡陰證에 형방지황탕 투여(己亥11월23-庚子3월)
64	1900(庚子)	후사병강연	졸(9월21일)		동의수세보원개초 (성명론-태음인편)

7. 版本比較

1) 濟衆新編은 格致藁의 附錄에도 보인다. 東武遺稿의 濟衆新編은 水東社 莊糧里 童蒙契 勸學文이란 小題目이 붙어 있으나 格致藁 附錄編에 들어 있는 濟衆新編은 없다. 또한 格致藁에 附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濟衆新編이란 題目 및에 (丁酉年)이라고 되어 있으며, 勸壽論 중 七條가 廣濟說에서 나온다는 注가 달려 있다. (表3. 참조)

[표3] 제증신편 판본 비교

비교항목	책명	東武遺稿	格致藁
小題目(濟衆新編은 水東社 莊糧里 童蒙契 勸學文)		기재됨	개재안됨
題目下年代(丁酉年)		기재안됨	기재됨
勸壽論七條가 廣濟說에 나온다는 注		기재안됨	기재됨

2) 東武遺稿의 時色耳目, 賓朋交遇, 儕輩黨與, 曹屬服役중 일부가 格致藁의 附錄에 遺稿抄란 제목하에 실려있다. 그 문단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格致藁에서 ①은 欲若過度로, ②는 道在利理로 되어 있다.

時色耳目, 賓朋交遇, 儕輩黨與, 曹屬服役. 言行何先? 行在言先. 人已何先? 人在己先. 何以然耶? 行若正大, 言無不美, 言若獨美, 行難繼美. 人若廣濟, 己無不得, 己但獨得, 人難兼得. 欲之亟也, 人心惟危, 利之鑿也, 道心惟微. 欲恒過度, 言必過度. 利恒不及, 人必不及. 言若過度, 行必不及. 人若不及, 己必過度. 欲恒過度,^① 義必不及. 理若不及, 利必過度. 義安欲危, 其德取安. 理精利麗, 其道取精. 惟精惟一, 理精義一, 允執厥中, 欲中利中. 欲在義邊, 相距不遠. 道在利邊, 相距不遠. 欲在義表, 義則謹欲. 道在利裡,^② 道則廣利. 欲修言行, 欲謹則義修. 利平人已, 利均則道平. 言行有序, 言不可先行. 人已有序, 人不可後己. 存心養性, 行必正大. 修身立命, 人必廣濟. 精於利理, 道平天下. 一於欲義, 德修一身. 道平天下, 是謂知命, 德修一身, 是謂樂天. 在昔聖人, 至情告我, 我思聖人, 遂至于今. 乙未十一月二十四日 (東武遺稿)

3) 性命論이란 제목을 달고 天機有四, 耳聽天視, 肺達事務, 頷有籌策, 頭有識見 耳目鼻口觀於天也, 天時大同也, 耳好善聲, 善聲順耳也, 肺惡惡聲, 惡聲逆肺也의 소제목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東醫壽世保元註釋의 性命論 註解와 동일한 내용이나 글자가 다소 다른 부분들이 보인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⁵⁾. 다음은 동무유고에 있는 내용이며 ⇒는 동의수세보원주석에 있는 내용이다.

[頭有識見] 頭之臟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 則此句之論太陽人言, 而

5) 푸른한의원 박윤희 원장에 의하여 두책을 비교하여 통신에 찍은 것을 이곳에 실었음.

特舉少陰人言者，蓋少陰出太陽，而奪其母神故也。肩之膜海，靈之所舍也。靈之爲氣，嚴肅而酷態度，自有威儀。則此句之論少陽人言，而特舉太陰人言者，蓋太陰生少陽，而假其子靈故也。腰之血海，魂之所舍也。魂之爲氣，顯達而奇行裝，自有材幹。則此句之論太陰人言，而特舉少陽人言者，蓋少陽出太陰而，憑其母魂故也。腎之精海，魄之所舍也。魄之爲氣，盛大而壯經營，自有方略。則此句之論少陰人言，而特舉太陽人言者，蓋太陽生少陰，而恃其子魄故也。然則，以我之短，學彼之長，以我之長，教彼之短，同是助成^①功歸正，故曰無奪無侈無懶無竊之謂也。 ⇒ <同時助成>^①

[耳目鼻口觀於天也] 天機之所當，無處不應之謂也。人事之所行，無時不用之謂也。心之所恃，發其知之謂也。身之所處，達其行之謂也。

[天時大同也] 仁義禮智與天同，是無變易之謂也。因時制宜，如羽橫空也。忠孝友悌與世同，是有齊立之謂也。從俗成化^②，如火炎上也。 ⇒ <從俗性化>^②

農工商虞與人同，是無休息之謂也。作類乘便，如鱗蹤壑^③也。 ⇒ <如鱗蹤壑>^③

田宅邦國與地同，是有與盛之謂也。隨祿應變，如水趨下也^④。 ⇒ <如水趨下也>^④

顯得者^⑤ 人之所贊也。逆失者，目之所欺也。 ⇒ <順德者>^⑤

正學者，思之所懼也^⑥。 ⇒ <思之所懼也>^⑥

邪陰者，神之所怒也^⑦。 ⇒ <神之所怒也>^⑦

明進者，聖之攸畏也。暗退者，景之攸辱也。德謙者，仇之攸恥也。妖誇者，惠之攸憎也。

[耳好善聲]

善聲非清雅之聲，善色非華麗之色，善臭非蕊香之臭^⑧。 ⇒ <善臭非芳香之臭>^⑧

善味非美佳之味^⑨。此等之事，令人反爲 ⇒ <善味非美佳之也>^⑨

聾盲塞缺之病^⑩。 ⇒ <聾盲塞缺之病>^⑩，

不爲足稱也^⑪。 ⇒ <不足爲稱也>^⑪

[肺惡惡聲] 惡聲非殺伐之聲，惡色非醜陋之色，惡臭非腐敗之臭，惡味非辛苦之味。

此等之氣^⑫，令人徒爲掩閉吐之勞，不足爲難也。 ⇒ <此等之狀>^⑫

[惡聲逆肺也] 惡聲是毀謗之聲，惡色是亂悖之色，惡臭是陰害之臭，惡味是偷盜之味。此等之狀，使人空成癡狂癩癩^⑬之患，可爲所慎也。 ⇒ <癡狂癩癩>^⑬

이상의 판권을 비교하여 본 결과 東武遺稿 중 誤字가 格致藁나 東醫壽世保元註釋에서 내용에 맞게 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東武遺稿 筆書年代는 格致藁⁶⁾ 東醫壽世保元註釋⁷⁾ 발간년대 以前으로 볼 수 있으나 필서에 사용한 종이인 명선록 인쇄본이 1940년에 발간되었으므로 1940년경으로 추정된다.

IV. 結 論

이상 동무유고의 내용을 고찰하여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6) 昭和15年(1940年) 7월5일 韓斗正이 咸興府에서 발행.

7) 1967년 한동석 발행.

1. 東武遺稿는 東武死後에 一人에 의하여 筆書되었으며, 필서시기는 1940년경 일 것으로 추정된다.
2. 東武遺稿의 글에는 31編의 다양한 글이 실려 있으나 4編은 東武의 것이 아니다.
3. 東武遺稿의 내용을 근거로 東武의 一代記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年表를 만들었다.
4. 동무유고는 年代別로 東武의 思想과 關心을 推定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參考文獻

1. 李濟馬 : 格致叢, pp155-162, 德興印刷所, 咸興, 昭和15年
2.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註釋 ,pp9-38, 誠理會出版社, 서울, 1967.
3. 강만길외11인 : 年表韓國史1권, pp514-545, 2권pp18-97, 한길사, 서울, 1995
4. 한주석 : 명선록의 내용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Vol.5 No.1, p107, 1993
5. 송일병:사상인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과정과 그 추구정신, 제1회국제사상의학회지1권, p149, 1994